

## 제도 개선

정범진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연** 말연시는 바쁜 시기이다. 특히 조직에 속한 경우에는 그렇다. 망년회나 신년회와 같은 행사, 인사치레 등도 바쁘지만, 신년 업무를 계획하는 것도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다.

돈벌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공공 조직의 경우, 신년 업무 계획의 단골 손님은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직원 숫자에 비례하여 제도 개선의 건수가 도출된다. 매년 수백, 수천의 제도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실행에 옮겨진다.

아직까지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 사원의 눈으로 보면, 거창한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를 줄줄 쏟아내는 선배님들은 감탄할만한 존재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선해야 할 제도가 수백 건씩 될 만큼 기존의 제도는 부실했던 것인지 회의가 들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도를 끊임없이 바꾸고 개선해 나가다 보면 금방 천국(!)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우리의 조직 문화는 왜 이리도 제도 개선을 좋아하는 것일까? 잠깐 경험한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제도가 이리도 매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것은 왜 이리 자주 바뀔까? 혹시 나 자신이 제도 개선을 피부로 느낄 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일까? 선진국의 제도는 오히려 느슨해 보이는데 우리 제도는 왜 이리 옥죄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매년 8%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여왔다. 급성장에는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런 후유증이 부동산 투기나 재벌만은 아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행정은 사회 발전에 맞추어 끊임없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이들을 개선시켜야만 했다.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야 했고, 이동 통신이나 인터넷 등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지난 30년간 부단한 제도 개선의 관행에 길들여진 행정가들에게 제도 개선은 이제 필수적이고 맹목적인 덕목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행정적 측면에서의 급성장의 후유증이라 하겠다.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행정적

제도 개선이 무조건 좋은 것인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새로이 바뀐 제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 데 충분하다. 물론 Paper Space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은 제도가 바뀔 때 사회는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저울질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회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제도 개선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인 제도 개선에 맞추어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과거 사회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개선에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제도 개선으로 변화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변화를 제도에서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빠른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제도가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버리기도 한다. 마치 전자공간상의 가상 세계인 Cyber Space가 생기듯이 Paper Space(서류 세상)가 탄생한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세상 말이다. 회식은 하되 2차는 절대로 가지 않으며 업무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다. 출근해서 신문만 보고 퇴근하는 직원은 없다.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건은 절대로 수정되지 않는다.

젓과 꿀이 흐르는 작은 정원을 꾸며놓고 그것이 마치 실제 세상이라고 여기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 정원이 싫증이 날 때가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새마을운동의 환상에 젖어서, 그 시절을 꿈꾸며 당시의 행정 관행을 요구하는 상관은 있다. 그렇다고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져서 파악하기조차 어

려운 제도에 대해 또다시 개선의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이제는 제도 개선이 무조건 좋은 것인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새로이 바뀐 제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 데 충분하다. 물론 Paper Space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은 제도가 바뀔 때 사회는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저울질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회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제도 개선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반대 측면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어떤 제도에 대해 또는 제도 개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할 경우에도 실은 전체적인 사고를 못하고 비판부터 하는 경우도 많다. 제도 개선의 불편함으로 토로하기에 앞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낸 다른 것들도 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